

## 제3절 고성3리(古城三里)

### 1. 마을의 자연환경

고성3리는 동쪽으로는 읍내5리와 접하고, 서쪽으로는 고성1리와 닿아 있다. 남쪽으로는 울진읍 읍내4리, 북쪽으로는 명도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울진읍 소재지의 최북단에 있다.

고성3리는 죽변에서 울진읍으로 진입하는 첫머리에 있는 마을로서, 지난 2008년에 고성1리에서 법적으로 분동(分洞)된 신 도심지이다. 흔히 ‘새마실’ 또는 ‘도롬’이라 부르며, 자동차 정비공장 등 자동차 관련 중소기업이 다수 있으며, 울진농협이 운영하는 LPG 충전소와 주유소가 있다. 또 울진군의 농공단지가 조성돼 있으며, 지난 2014년 건립된 금광베네스타 아파트와 금광골든캐슬아파트, 송림파크아파트 등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 있다. 인근에 울진교회가 최근에 이 건 되었으며, 울진경찰서와 울진교육청 청사가 이전, 예정되어 있다.

### 2. 마을의 역사

#### 1) 비석거리

‘도롬’으로 부르는 곳에 조선조의 울진 현령이나 강원도 관찰사 등의 불망비 다수가 세워져 있어 ‘비석거리’로 불렸으며, 이곳에 세워져 있던 비석군은 읍내리 월성공원으로 이 건됐다.

### 3. 가구의 분포

총 355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에 새로 형성된 마을이어서 집성된 성씨는 없으나, 주로 김씨, 이씨, 박씨, 장씨 성이 주를 이루고 있다.

## 제4절 대흥리(大興里)

###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2km 거리의 금산(錦山)을 경계로 신림리와 근남면 행곡리와 접하고 서쪽은 국시봉(國是峯)이 높이 솟아있으며, 금강송면 하원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남쪽은 불영사계곡

건너편인 근남면 수곡리 지역이고, 북쪽은 악구산(岳丘山)이 있으며, 산(山) 너머에는 북면 두천리가 있다. 마을회관은 2009년에 건립되었으며, 현재 경로당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 2. 마을의 역사

### 1) 건잠(乾岑)

21가구가 살고 있으나, 5대 이상 사는 씨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마을의 역사는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개척 연대는 미상이다. 이 마을은 원래 건지암(乾地岩)으로 불렸으며, ‘마을 주위에 큰 암석(巖石)이 많이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후에 발음이 변하여 건잠(乾岑)으로 되었다. 울진-영주 간 옛 36호 국도변에 휴게소와 위령탑이 있다.

### 2) 깨밭골

산골 마을로 밭이 많고 물 빠짐이 좋은 토양으로 이뤄져 깨 농사가 잘된다고 하여 깨밭골이라 불렀다고 전하며, 개척(開拓) 연대(年代)는 미상(未詳)이다.

### 3) 대흥동(大興洞)

계곡(溪谷) 양편(兩便)에 마을이 형성됐으며, 마을이 형성되기 전에는 대흥사(大興寺)가 있었다고 전한다. 마을 개척 연대는 미상이며, 현재 19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 4) 독점

옛날에 독[오지그릇]을 만들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5) 돌선골(立石洞)

큰 바위가 높이 서 있었다 하여 붙여진 마을이며, 사람이 살기 시작한 연대(年代)는 미상(未詳)이다. 현재는 10가구가 살고 있다.

### 6) 장구령(長丘嶺)

옛날부터 화전민(火田民)이 살아왔으며 드물게 인가(人家)가 있는데, 개척(開拓) 연대(年代)는 미상(未詳)이다.

## 3. 가구 분포

총 58세대가 거주하며 김녕 김씨(金寧金氏), 울진 장씨(蔚珍張氏), 남양 홍씨(南陽洪氏),

영양 남씨(英陽南氏) 등이 세거하고 있다.

## 4. 마을의 특징

### 1) 국시봉(國是峯)

국기(國旗) 게양대의 깃봉과 같이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2) 대흥사지(大興寺址)

651년(신라 진덕왕 5)에 의상대사(義湘大師)가 창건했다고 전하는 신라 사찰로 현재 사지만 현존한다. 용(龍)트림 목침(木枕) 받침 건물 방식으로 지었다는 설이 전해진다.

### 3) 성황당(城隍堂)

마을 입구(入口)의 미루나무를 성황신(城隍神)으로 모시며, 매년 정월 보름날 자정(子正)에 엄선된 제관(祭官)이 마을의 강녕(康寧)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린다.

### 4) 소봉산(巢鳳山)

지금은 폐사된 대흥사(大興寺)의 뒷산이며, ‘봉황(鳳凰)이 알을 낳는 보금자리와 같다’ 하여 소봉산(巢鳳山)이라 한다.

### 5) 약구산(岳丘山)

태백산맥(太白山脈)의 지맥(支脈)인 안일왕산맥(安逸王山脈)이 동남(東南)으로 뻗어 낮고 가늘게 되었다가 갑자기 높고 웅장하게 치솟은 산(山)이며, 산 정상(頂上)은 두 개의 봉우리를 이루고 있다.

## 제5절 명도1리(明道一里)

###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산 능선 너머에 온양리(溫洋里)가 있고 2km 거리에 동해가 있다. 서쪽은 내(川)를 경계로 호월리와 명도2리와 접하고, 남쪽은 고성리 지역과 접한다. 북쪽은 봉평2리인 박곡(朴谷) 지역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마을회관은 2006년에 신축되었다.